

# 5년 적자 탈출 승부수... 비주류 털고 '식품·SPA' 집중



식품BG, 가파른 성장에 독립체제로 '에슬리퀸즈' 필두로 매출 1조 목표 하이퍼BG, 급성장세 간편식 강화 '폴더' 매각, 자체 브랜드에 역량 모아 이츠몰 운영 종료... 고정비 부담 ↓

이랜드그룹이 '선택과 집중'을 핵심 키워드로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외형 성장이 두드러진 사업부는 독립 체제로 격상해 전문성을 키우고, 성장이 정체되거나 수익성이 낮은 비주류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는 등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랜드그룹은 올해 초 도입한 식품BG를 출범 3개월 만에 외식BG(이랜드이츠)와 하이퍼BG(김스클럽·식자재)로 본격 분리했다.

당초 외식 브랜드와 유통 채널의 시너지를 노리고 통합 운영했으나 두 부문도



이랜드이츠 에슬리퀸즈 엔터시스 상봉점 대기 행렬. /이랜드

두 연 매출 1조원 달성을 앞둔 만큼 성장세가 가팔라지자 독립적인 의사결정 체제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랜드이츠는 '에슬리퀸즈'를 필두로 연 매출 1조원 시대를 연다는 포부다. 에슬리퀸즈는 지난해 매출 5000억원을 기록한 효자 브랜드로 올해 매장 수를 150개까지 늘려 단일 브랜드 매출 8000억원

을 목표로 한다. 주방 자동화와 AI 시스템 도입을 통해 운영 효율도 극대화할 방침이다.

하이퍼BG는 김스클럽과 식자재 법인 이랜드팜앤푸드를 총괄한다. 산지 직거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급성장 중인 간편식(HMR) 사업을 강화해 올해 1조원 규모의 매출

을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체질 개선을 위해 비주류 사업을 정리하는 속아내기 작업도 한창이다. 이랜드월드는 지난 1월, 슈즈 편집숍 '폴더(FOLDER)'를 ABC마트에 매각하기로 결정했다. 연 매출 1000억원대의 안정적인 브랜드지만, 외부 브랜드 유통 중심인 편집숍 모델보다는 직접 기획·생산하는 자체 브랜드(PB)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랜드이츠는 최근 자체 쇼핑 서비스인 '이츠몰'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는 자체 앱을 멤버십과 예약 등 본연의 기능에 집중시키고, 판매는 네이버나 쿠팡 등 외부 대형 채널로 일원화해 고정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비핵심 외식 브랜드 9개를 이미 매각한 데 이어, 운영 효율이 낮은 채널까지 정리하며 수익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확보된 자원과 역량은 이랜드가 강점을 가진 자체 SPA 브랜드(스파오, 미쏘, 슈펜)와 스포츠 브랜드 '뉴발란스'에 재투자된다. 특히 스파오 등 SPA 브랜

드는 이른바 '2일5일(2일간 소량 생산 후 시장 반응 확인, 5일 이내 대량 생산)' 시스템을 정교하게 재고를 최소화하고 정판율을 높이는 무재고 경영 실현에 집중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랜드리테일이 5년 연속 순손실을 이어오는 등 경영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조직 개편과 포트폴리오 재편이 반등의 신호탄이 될지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2020년 2257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한 이랜드리테일은 2021년 229억원, 2022년 229억원, 2022년 875억원, 2023년 940억원, 2024년 1679억원으로 5년 연속 순손실을 이어가고 있다

이랜드그룹 관계자는 "사업 영역별 책임 경영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내실 있는 성장을 가속화하고, 트렌디한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는 본연의 경쟁력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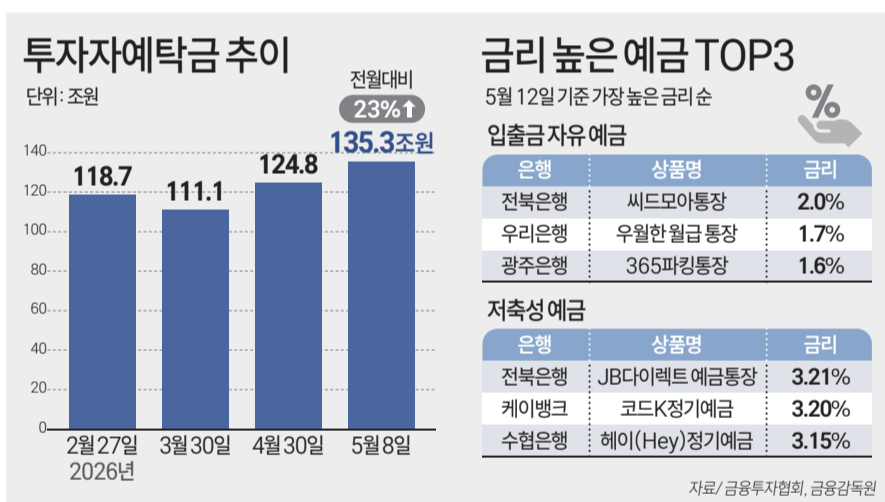


# 증시 '머니무브' 심화... 은행권, 금리 올려 이탈 막는다

투자자예탁금 한 달 새 23% 늘어  
입출식 자유예금 최대금리 연 2%  
저축성 예금 연 3.21% 등 소폭 조정

코스피지수가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은행권의 요구불예금은 감소세다. 은행의 대기성 자금이 증시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은행권은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예·적금 금리를 소폭 올리며 수신 방어에 나서는 모습이다.

12일 금융투자협회 증시자금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8일 투자자예탁금은 135조2991억원으로 집계됐다. 한달전(109조8332억원)과 비교해 23% 증가한 수준이다.



투자자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이나 금융상품 매수를 위해 증권사 계좌에 넣어둔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최근 코스피가 8000선에 육박하면서 증시로의 자금 이동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은행권 요구불예금 잔액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 4월 요구불 예금 잔액은 11일 기준 695조9217억원으로 4월 말(696조5524억원)보다 6307억원 감소했다. 지난 달 3조3557억원 줄어든 데 이어 두달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저축성 예금도 줄었다. 5대은행의 저축성 정기예금 잔액은 같은기간 937조1834억원에서 860조2256억원으로 76조9578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수시입출식 예금과 저축성 예금 금리를 소폭 올리는 모습이다.

이날 기준 입출식 자유예금(파킹통

장) 금리는 전북은행 '씨드모아 통장'이 연 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우리은행 '우월한 월급통장'이 연 1.7%, 광주은행 '365파킹통장'이 연 1.6%를 제공했다.

저축성 예금 가운데서는 전북은행의 'JB다이렉트 예금통장'이 연 3.21%(1년 만기) 금리를 제공하며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어 케이뱅크의 '코드K 정기예금'이 연 3.20%, 수협은행의 '헤이(Hey)정기예금'이 연 3.15%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증시 거래대금 증가와 코스피 상승세 영향으로 투자 대기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며 "은행권도 요구불 예금 감소에 대응해 예·적금과 파킹통장 금리를 소폭 조정하며 수신 경쟁력 확보에 나서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CJ제일제당, 식품사업 내실 다지며 매출 4조 돌파

1분기 영업이익 1485억... 26% 줄어

CJ제일제당이 K-푸드의 글로벌 영토 확장과 가공식품 신제품 효과에 힘입어 올해 1분기 매출 4조원을 돌파했다.

CJ제일제당은 올해 1분기 연결기준(CJ대한통운 제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4조 271억원을 기록했다고 12일 밝혔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485억원으로 26.0% 감소했으나, 주력인 식품사업부문은 오히려 내실을 다지며 성장세를 보였다.

사업 부문별로 살펴보면 식품사업부문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식품사업은 매출 3조 384억원(+3.9%), 영업이익 1430억원(+11.2%)을 기록했다.

특히 해외 식품사업 매출이 1조 5555억원을 기록하며 전체 성장을 견인했다. 미주 시장에서는 만두(+15%)와 상온밥(+7%) 등 글로벌전략제품(GSP)의

매출이 크게 늘었고, 피자 역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유지했다. 유럽과 아태지역 매출도 각각 17%씩 급증했다. 일본의 경우 치바 신공장 가동 효과로 만두 매출이 17% 증가하며 현지 시장 점유율 11.0%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국내 식품사업 매출은 1조 4829억원으로 3.2% 늘었다. 대두박 사항 약제로 소재 사업은 다소 부진했으나, 넷플릭스 인기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IP와 연계한 셰프 컬렉션 등 차별화된 신제품이 가공식품 매출 성장을 이끌었다.

바이오사업부문은 매출 9887억원(+5.7%), 영업이익 55억원(-92.4%)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은 줄었으나 전분기와 비교하면 52억원 증가하며 수익성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

회사 측은 라이신 등 범용 제품의 가격 하락에 대응해 알지닌 등 고부가가치 제품인 '스페셜티' 이미노산 판매를 대폭

늘린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했다.

CJ제일제당은 2분기에도 K-푸드 신영토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미주에서는 비비고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디지털 캠페인을 전개하고, 유럽은 메인스트림 채널 진입과 제품 카테고리 확대를 지속한다. 바이오 부문 역시 스페셜티 중심의 판매 구조를 공고히 해 수익성을 한층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글로벌 전략 제품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한편, 경영 효율화와 사업 구조 고도화를 통해 수익성 개선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CJ대한통운을 포함한 CJ제일제당의 연결기준 1분기 매출은 7조 1111억원(+6.0%), 영업이익은 2381억원(-17.2%)을 기록했다. /신원선 기자



# "실질채무 GDP比 10%... 국가채무 우량"

>> 1면 '긴축 함정에 빠지면...'서 계속

이대통령은 "우리나라의 명목상 채무 말고 실질 채무가 GDP 대비 10% 정도라는 국제기관의 발표도 있었다"며 "다른 나라, 어느 나라보다 국가 채무 구조가 우량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정부는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국민경제 대도약의 발판을 닦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다. 이런 기초를 바탕으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수립과 내년도 예산편성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대통령은 기존 예산을 없애기 어려운 것을 안다면서도 "효율이 90%인 사업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효율 100% 사업을 하면 예산이 10% 늘어나는 것과 똑 같다. 평가가 쉽지 않지만 과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작년에는 사실상 우리가 예산

편성을 못 하고 이미 (준비하고 있던 계획에) 끌려가서, 기회는 올해밖에 없다"며 "내년은 더 어려워진다. 올해가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027년은 이재명 정부가 처음으로 온전하게 예산편성의 전 과정을 주관하는 진정한 '국민 주권 예산'을 수립하는 해"라며 각 부처에 협조 사항을 전했다. 박 장관은 국정과제에 필요한 소요를 예산요구서에 충분히 반영하되, 지출 구조조정 목표를 엄격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올해는 재정 지출의 15% 및 의무 지출의 10% 감액, 사업 10% 폐지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올해 신설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금액 관정된 사업은 15% 이상 감액하고, 폐지 관정된 사업은 실제 폐지해 달라"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서예진 기자 syj@